



이탈리아 국채 수익률 정치적 문제로 변동폭 심화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이탈리아는 재정감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정치적 불안이 커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함.

-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1월 7일 한때 6.68%까지 치솟아 유로 출범 이후 최고치에 도달함.
-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독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간의 차이(스프레드)도 이날 한때 491bp까지 벌어짐.
- 또한 유로지역 내 AAA 국가(6개국)의 평균 국채수익률과의 차이도 420bp로 확대됨.

■ 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국채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탈리아 국채 부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.

- 파이낸셜타임스는 이탈리아 국채가 위험권에 들어갔고 낭떠러지 위험¹⁾에 직면했다고 경고함.
- 씨티그룹은 국채 수익률이 6%를 넘어서면 이전으로 회복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고 언급하면서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은 환류 고리(feedback loop)가 작동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.
- 블룸버그는 유통 중인 이탈리아의 국채 규모가 약 1조 6천억 유로로 스페인, 포르투갈, 아일랜드의 국채를 합친 것보다 크기 때문에 국채수익률이 이번처럼 급등할 경우 이탈리아의 국채발행비용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.
- 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(ECB)이 국채를 매입해주어 이탈리아가 현재까지 버티어 왔으나 이마저도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향후 ECB가 추가 국채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함.

1) 금융시장이 초긴장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쁜 뉴스가 나오면 견잡을 수 없이 더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함.

■ 그러나 이탈리아 총리가 사임의사를 표명하면서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임.

- 이탈리아 총리의 사의 표명은 11월 8일 실시된 「2010년 예산 지출 승인(안)」표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데 따른 것임.
 - 「2010년 예산 지출 승인(안)」은 야당 의원들의 대거 기권으로 가결되었으나 재적의원 과반수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정권 유지가 어렵게 됨.
 - 야당은 현 정부가 지금의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는 뜻을 밝혔고, 연정 파트너도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었음.
-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은 「2010년 예산 지출 승인(안)」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확보에 실패한 이후 다시 급등 하여 1999년 이후 최고치인 6.77%까지 치솟았으나, 총리 사임의사 표명 이후 금융시장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임.
 - 미국 뉴욕 증시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, 유로화 가치도 오름세를 나타냄.

(Financial Times 11/7, 11/8)